

미키 가문 주택은 후쿠사키의 저명한 오조야(에도시대의 지방관리)의 저택이자 정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부지 내에 처음 세워진 건축물은 169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단계적으로 건축이 계속되었습니다. 1874 년, 새롭게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 건설이 시작되자 집 앞의 땅이 1.8m 후퇴하게 되면서 정면 현관과 남쪽 담장이 신설되었습니다.

훗날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가 되는 히자 야나기타 구니오(1875-1962 년)는 아직 어렸던 1885 년에 이 저택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11 살이었던 야나기타 구니오는 미키 가문의 장서를 폭넓게 읽었는데, 이 경험은 그 후 그의 탐구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1972 년 미키 가문 주택은 효고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실시된 대규모 개수 때는 최대한 본래의 자재를 재이용해 안채를 복원했습니다.